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주제 제25468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이십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현재 년간물고기잡이목표 147% 계선 돌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실장마다에 새겨안고 도루매기 집중어로전투에서 렌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11월 19일 오늘현재 지난해 집중어로전투기간에 잡은 수량보다 투배나 되는 9만여t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10만 목표를 향해 계속 돌진하고 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운해에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은 200일전 뿐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 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활금해역사찰조의 고함인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 유흥상장 서홍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활금해역 사찰조의 첫 폐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는 자신과 깊은 정을 맺은 곳이라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가득 실고 들어와 환장 하류작업을 하고 있는 고기배 『단풍1-03』호에 오르시여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물을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를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갑격의 눈물을 훔리며 어쩔 바를 몰라하는

어로공들을 만나주시면서 추운 날씨에 날바다에 나가 수고들이 많다고, 물고기를 잡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다는데 힘들지 않는가,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 일일이 물으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으며 『단풍』호고 기배의 교향에서 일하는 공자와 자부심을 안고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배가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물고기 잡이

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내, 공급점검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행동처장고에 틀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 판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보면 어디서나 이런 훌륭한 풍경을 볼수 있다고. 8월 25일 수산사업소 행동처장고도 티계나가도록 물고기들이 짹 차 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 공장에서 일손을 다그치고 있는 어로공들의 안락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시 제시한 물고기 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안락들은 가족소대를 둑고 경쟁적으로 물고기가 공전 류를 벌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절임창고에 틀리시여 물고기염기가 배어있는 절임탕크에 스스로 없이 앉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초급통 및 행동시설들을 더 갖추어 놓고 가공공정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신선한 물고기를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 주자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해결되는 문제를 모두 줄여주겠으니 그저 물고기만 팽팽 잡으라고 당부 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이십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현재 년간물고기잡이목표 147% 계선 돌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도루에 기집중어로전투기간에 전폐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었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판선기를 날리기 전에는

포구에 뒷을 내릴수 없다. 충정의 보고를 안고 당중앙뜨락에 들어서자고 하면서 당정책결사판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한 이곳 어로전사들의 충정심에 감복해서 바다가 길을 열어주고 물고기를 도매지에 찾아온 것 같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업소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를 말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이 잡아들인 물고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울 이야기를 끊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에 고기배를 무어 보내주면서 오목백과 주령진 풍요한 가을이 바다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며 배들의 이름을 『단풍』호라고 지어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같은 기적이 빨리도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물고기 보물산은 물줄의 정신력이 용축된 위훈의 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과 같은 어로신화를 창조할 수 있은 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마음속신들매를 바싹 조여매고 당정책결사판철의 노를 역세계 져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루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새 역사상을 반드시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함으로써 황금해의 역사상을 국제충정의 피와 땀으로 풀기차게 쐬나가는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부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민민에 대한 불라는 충정심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세세년년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마련하는것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대해 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편집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병사사랑, 인민사랑의 열파 정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멸사복무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역적인 평도와 현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비단양기는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자애로운 원수님의 사랑을 길이 길이 전하며 최전열초소로부터 두대산풀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에 더 질계, 더 가득히 차고 넘칠것이다.

본사장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가 덕을 볼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수산부문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사 설

당의 령도따라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뛸치자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혁명의 한족수에 바꿔를 힘차게 밀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기개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 깊은 울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흥분적정이 벌어지고 있던 가운데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대와 관심속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가 진행된 것은 주체적인 운동으로서 특기할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내성동맹을 수령의 너성동맹, 당의 내성동맹으로 벌어지게 하자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너성동맹의 명칭이 새롭게 명명됨으로써 우리 너성동맹의 혁명적성격을 끽웃이 고수하고 그 위력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확장시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솔을 품을 잡고 머어린 두성을 벌렸으며 가볍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천선과 후방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혁명군, 참다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너성들이이다.

우리 너성들은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도 대체로 혁명적이며 힘있게 대처하는 너성동맹과 너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참으로 저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너성군人们的 너성원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의 너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증진시켜들이켜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헌신하고자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높여나가고자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너성동맹은 주체의 너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힘

있는 력량이다. 너성동맹이 강화되고 너성들이 힘차게 떨쳐나갈 때 우리 혁명위업은 더욱 활약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일내기 위한 흥분적정이 벌어지고 있던 가운데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장을 통하여 당중앙을 응집해나가는 너성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굳건하다.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은 사회주의 너성동맹의 역사적시성이이다.

이번 대회에서 너성동맹의 명칭이 새롭게 명명됨으로써 우리 너성동맹의 혁명적성격을 끽웃이 고수하고 그 위력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확장시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솔을 품을 잡고 머어린 두성을 벌렸으며 가볍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천선과 후방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혁명군, 참다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너성들이이다.

우리 너성들은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도 대체로 혁명적이며 힘있게 대처하는 너성동맹과 너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참으로 저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너성군人们的 너성원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의 너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증진시켜들이켜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헌신하고자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높여나가고자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너성동맹은 주체의 너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힘

수많은 너성들의 충실성의 산모법은 오늘 우리 전체 너성들과 너성원들의 기습속에 고동치는 배우같은 충정의 열도를 넘김없이 파시하였다. 세상이 일백년 떤하고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여도 하늘땅 끝까지 수령의 너성동맹, 충정의 대오로 헌법제정이 천집연마법의 천연요새가 되어 당중앙을 응집해나가는 너성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굳건하다.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은 우리 나

라 사회주의의 기적을 아름답게 꾸려

나가는 힘있는 행방이다.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믿는다.

나가는 위력한 혁명조직이다.

우리의 부강조국건설사업의 깊이

마다에는 너성들의 빛나는 위용의 자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세계에는 너성동맹의 명칭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너성들은 조국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도 대체로 혁명적이며 힘있게 대처하는 너성동맹과 너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참으로 저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사회주의너성동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한 강령적지침을 미련주시한다.

주체의 너성운동에서 기본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당과 혁명, 너성동맹의 혁명적지침이다.

주체의 너성운동에서 기초선은 당과 혁명, 혁명적지침이다.

